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 가격 담합

공정위, 도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확인
협회에 판매가격 제공 두 농협엔 과징금 20억2000만원
"가격 담합 없었다면 ℓ당 10~60원 정도 낮아졌을 것"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가 협회 회원사들에게 결정한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회원사들의 판매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준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유지 결정에 적극 참여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농협에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에 10억3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와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제주시농협이 운영 중인 3개 주유소 중 1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가 모두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이었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단체대화방·문자 등으로 116개 회원사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가격 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에 앞서 협회에 미리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협회와 가격 인상·유지 여부를 협의하는 등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격 담합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과 나머지 주유소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일반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 주유소보다 높으면 판매가 어려워지고,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도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다음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가 있어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가격은 최소 ℓ당 10원에서 최대 50~60원까지 낮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동문시장 일대 정전… 주민·상인 불편 겪어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한때 주민과 상인이 불편을 겪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을 포함한 제주시 이도1동과 삼도2동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대 171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겨 불편이 이어졌다.

한전은 바로 복구작업에 나섰고, 정전 발생 45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16분쯤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한전은 개폐기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관광 중소기업에 단시간·유연근무제 지원

2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제주 관광 중소기업에 단시간근로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6 제주관광일자리 워라밸 환경개선 지원사업 플러스' 참여기업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관광업종 중소기업에 단시간근로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숙박·음식업, 전시·행사 대행업, 공연업, 관광유람선업, 관광 관련 정보서비스업 등 제주도 소재 관광 관련 업종 기업이다. 제주도 6차산업 인증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시간근로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월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기업 인센티브(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최대 5개월간 총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월 10만원의 워라밸 활동지원비를 최대 5개월간 별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ocm

"해양오염 발견시 신고를"

해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한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조사·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의 단서가 되거나 방제조치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월척'을 기다리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안에서 관광객들이 테우낚시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학생 선배와 만나는 '진로특강'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 12개교서 운영

제주시 지역 중학생들이 대학생 선배를 만나는 진로특강이 운영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 지역 중학교 12개교, 83학급을 대상으로 '2026 대학생이 들려주는 진로특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강은 제주 출신 대학생이 희망 중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대학 생활, 학습 경험 등을 공유하며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특강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16명으로 간호학과, 반도체공학과, 행정학과, 스포츠과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안내한다. 김지은기자

제주 가치 알리는 '교육활동가' 키운다

도교육청, 오는 11월까지 양성 과정 개설·운영
교육활동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수업'도 확대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교를 찾아 제주의 가치를 알릴 교육활동가를 양성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 28일까지 '2026 민주시민·역사·제주이해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모두 30시간의 강의로 짜여졌다. 현직 초중고 교원 등이 강사로 나서며 회의 진행법, 제주이해 마을교육 수업 기획, 제주 항일운동 역사, 제주어의 교육적 활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강의계획서 작성과 논술, 수업 실연 등 10시간의 필수 평가가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된다. 최종 위촉된 교육활동가는 내년 학기부터 도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수업에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천읍)

위성곤

김덕홍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읍이장협의회 회장 박재영 외 회원 일동
신촌리장 김창범 조천리장 박재영 신흥리장 이상곤 함덕리장 이승택
북촌리장 김영수 선흘1리장 김문환 선흘2리장 이승철 와산리장 김택철
대흘1리장 송승현 대흘2리장 양제영 와흘리장 강익상 교래리장 나봉길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강영아

오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체육회 임원 일동